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보장의 미래

한창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책세미나
2021. 11. 8.

목차

- 문제제기
- 현 사회안전망
- 사회적 위기들
- 개혁 논의들
- 미래 한국사회안전망의 좌표?

문제제기

-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됨.
- 하지만 정책환경의 변화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보건위기,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가 촉발됨.
-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정책적으로 적절한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
- 선택의 시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디자인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 시기가 다가옴.

사회보장의 개선 그러나 여전히 부족

공공사회지출(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연도	스웨덴	독일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	OECD
1990	26.9	21.4	15.7	10.9	13.2	2.6	16.5
2019	25.5	25.9	24.0	22.3	18.7	12.2	20.0

상대적 빈곤율 추이(사회보장통계, 2020)

	2011	2013	2015	2017	2019
시장소득(%)	19.6	19.1	19.5	19.7	20.8
가처분소득(%)	18.6	18.4	17.5	17.3	16.3
변화 갭 (시장소득-가처 분소득: %p)	1.0	0.7	2.0	2.4	4.5

사회안전망의 개선1: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구축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4대 보험 구축
 - 장기요양보험도 2008년에 도입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산적해 있는 과제들
 -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
 - 국민연금 개혁 필요
 - 건강보험 비급여이슈 그리고 재정 안정성 논의
 - 고용보험 그리고 실업부조제도의 개선
-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2022년)

사회안전망의 개선2: 공공부조

-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 생활보호법 체계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한 공공부조제도 개선

- 최근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0월)

구분	'16.12	'17.12	'18.12	'19.12	'20.12
수급자 수	1,630,614	1,581,646	1,743,690	2,134,186	2,317,636
생계	1,240,677	1,234,559	1,229,067	1,232,325	1,301,061
의료	1,409,548	1,390,944	1,395,056	1,440,298	1,443,295
주거	1,378,915	1,351,427	1,529,726	1,681,041	1,947,099
교육	381,200	335,004	309,729	292,773	303,747

사회안전망의 개선3: 사회서비스

-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
 - 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 통한 바우처 사업의 확대
- 사회서비스의 확대과정에서의 공공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
 -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극단적인 민간 의존형
 - 종사자 처우가 낮고 서비스 질도 낮다는 문제점
-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로서 표준서비스를 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한국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하지만 한국사회서비스원의 출발부터 순탄치 않음.

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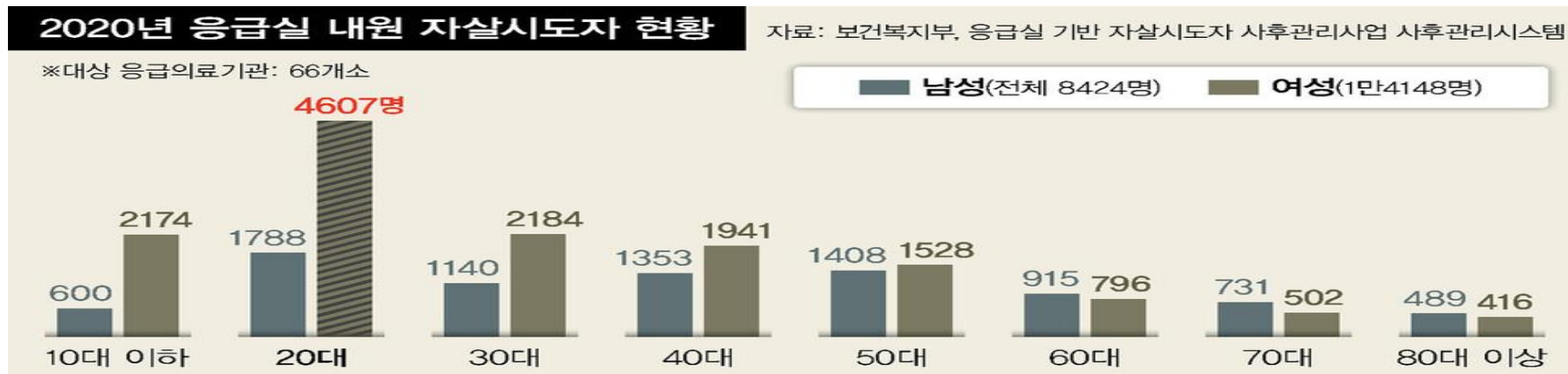
- 상대적 아동빈곤율
 - 한국: 14.2%(2017)에서 10.6%(2019)로 감소
 - OECD 평균 12.7% (스웨덴: 9.0%; 일본: 13.9%; 프랑스: 11.7%)
 - 아동수당의 실시: 0세~만7세 미만, 월 10만원
 - 영아수당의 신설(2022): 현금 30만원 또는 바우처(50만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도입.
-
-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
 - 특히 아동청소년 행복도 조사결과(2018년) OECD 비교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음.

청년

- 최근 정책의 주요 대상 및 관심분야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
- 따라서 청년에 관한 좀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함.

청년이 처한 다중위험들 그리고 그 결과

- 고용, 주거, 건강 등에 있어서 청년세대들이 다중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문길, 2021)
- 연령대별 자산대비 부채비율에서 30세 미만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세대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서의 위험신호들
- 스트레스 인지율도 청년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의 높은 자살시도자(한겨레신문, 2021. 05. 03.)



청년정책의 사회정책적 관점

- Generation free perspective

- 그 동안 청년들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은 두드러지지 않음
- 빈곤하면 공공부조
-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보험
- 실업 및 고용에 문제가 있으면 고용지원제도
- 기존 사회정책으로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제

- Youth centered perspective

-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슈들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청년 중심의 정책들의 도입 및 확대
-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화: 출산지원책 등
-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된 정책들: 청년수당, 청년배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기본법

-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 신설('19.7)
-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의 제정
-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출범('20. 9)
- 청년: 19세 ~ 34세
- 청년정책의 정의: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
- 청년발전: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 5대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
어듭니다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복지 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
니다

참여 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 및 예산(억원)

- 부처별 시행할 청년정책 총 수는 308개에 이릅니다.
- '21년도 청년예산은 23조 8천억원 수준임.
- 5개 핵심분야별 예산에서 주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일자리, 교육, 복지생활, 그리고 참여권리 순임.

청년정책 핵심사업별 정책 실효성 진단

• 김기현 외(2020)

진단 항목	진단 지표	진단기준	진단 방법
계획 수립	1.대상자 부합성	대상자 중 청년층 비율	상: 80% 이상; 중: 50% 이상 ~ 80% 미만 하: 50% 미만
	2.대상자 포괄성	청년층 사업 수혜율	4분위수로 상, 중상, 중하, 하로 도출
집행 과정	3.자원투입 충분성	1인당 투입 사업예산	사업예산, 수혜율, 참여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성 진단
	4.정책 환류 충실성	모니터링단 구성여부 및 청년 참여여부	상: 모니터링단이 존재하며 청년이 참여 하: 모니터링단이 존재하나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성과 달성	5.정책 효과성	해당정책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	청년 사업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4분위수로 측정
	6.정책 인지도	청년층 정책 인지율	청년 사업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4분위수로 측정
	7.정책 효율성	비용대비 달성도	목표 달성도의 비용대비 적정성 판단

청년정책 실효성 진단 결과

영역	과제명	정책 실효성 진단 결과						
		1	2	3	4	5	6	7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상	상	중상	상	상	상	중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	상	중상	상	상	상	중상
	청년전용창업자금	상	중하	중상	상	상	상	중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상	중상	비예산	상	중하	중하	중상
주거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상	하	중하	하	하	중하	중하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확대	중	하	중상	상	중상	상	중상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상	하	중하	하	하	중하	중상
교육	국가장학금 확대	상	상	중상	하	상	상	상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상	-	중상	하	상	상	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상	-	중상	하	상	상	상
	일 학습 병행제 운영	상	상	중상	중	상	중상	중하
복지 생활안정	청년희망키움통장	상	중하	중하	상	하	하	중하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중	중하	비예산	중	중하	중하	중상

노인

-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11	2013	2015	2017	2019
시장 소득	56.9	55.7	56.6	56.7	59.0
가처분 소득	46.5	46.3	43.2	42.3	41.4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 2011년 5.7%, 2015년 6.5%, 2019년 8.6%

노인

- 노인복지예산 1위: 기초연금
 - 약 597만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30만원으로 확대
 - 노인복지예산의 약 79% 투입
 - 노인복지예산 증가에 비해 기초연금 비중이 과중해서 다른 노인복지사업의 확대 및 개선이 어려움
- 노인복지예산 2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 21년 약 80만개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의 업무부담 과중(노인일자리 담당자 1인당 169개 사업 담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존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 21년 기준 5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수요대비 턱없이 부족

소결

-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거쳐옴.
- 4대보험, 장기요양보험, 상병수당, 아동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각종 사회서비스 등 제도적 도입은 주목할 만함.
- 다양한 사회지표에 있어서 긍정적인 개선도 이루어짐(대표적으로 빈곤율의 감소)
- 하지만 급격한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한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이 있음.
- 또한 여전히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발전이 부족한 실정임.
- 제도 도입 이후에 제도의 질적 발전을 통한 제도 포용성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임.

산적한 이슈들

- 다중 위험사회
- 다중 격차
-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청년세대
- 아동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사회서비스의 양적 그리고 질적 확충

현재 논의중인 개혁 논의들

-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본시리즈
- 기본소득 +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 기본자산
- 안심소득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은 무엇?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목적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며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전 국민
대상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200가구	기준소득 미달분의 50%	지원금	단계별 연 50만~500만원
기준	4인 기준 연 소득 5850만원, 월 소득 487만6000원 이하	53조원	연 예산	26조~300조원
지원금	기준소득 부족분의 50%	증세 없이 복지제도 재설계	재원 마련	로봇·데이터·탄소세 등 증세

※연 예산은 전 국민 대상 추정치

기본소득 도입 vs. 기존 사회보장개선

-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연 총 180조원이 필요.
- 이재명후보 기본소득 공약: 전국민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약 50조) + 청년(19세 - 29세 700만명)에게는 100만원 추가 지급(약 7조)
- 기본소득옹호론: 노동시장에서의 자유, 개인의 선택 및 개인발달투자, 소비촉진 등
 - 기본소득옹호론자들도 기본소득에 추가하여 사회보장 개선을 추진하려는 내용을 제시함.
- 기존 사회보장제도 개선론: 기본소득 실시할 돈으로 현재 산적해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소득보장 지원 확대(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전면적 확대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확보

피할 수 없는 논의점: 증세

- 탄소세, 데이터세, 등의 새로운 세목 도입
- 국토보유세 등을 통한 기존 세제의 개혁
-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서의 세수 증대
 - 국민연금의 기여율 제고
 -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논의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위한 준거점들

주요 요인	주요 특성들
보편성(Universality)	- 전국민을 포용하는 제도로 확대 - 사각지대 해소 - 공동체의식 및 소속감 확산
누진성(Progressiveness)	-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 - 공정 세제 도입을 통한 누진성 확보
일생주기성(Life-long)	- 가능하면 출생부터 지원 - 일생주기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 지속성 확보
적절성(Adequacy)	- 정책 목표의 구체적 제시 -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 정도

1. 보편성

- **관련 법규나 제도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을 어느 정도 포함하느냐의 정도**
- **이상적으로는 적용 대상 전체를 포함하는 제도의 실시가 바람직하나,**
- **사각지대 이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전국민연금제도의 허구성)**
- **보편성의 적용에서의 예산이슈: 전체를 얹게 보장하느냐 vs. 소수를 상대적으로 선택적으로 보호하느냐**
- **일반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조금씩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1인 1연금계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누진성

- 공평성의 기본 원칙
- 기본적으로 조세원칙에 적용됨
- 다른 한편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결과적으로 many helping lines(자격기준선), 자비부담의 차등화 등이 실시됨.
- 누진성 확보를 위한 제언들
 1. 연금기여율(왜 꼭 1:1이어야 하나?)
 2. 건강보험의 기여율
 3. 소득수준에 따른 교통벌칙금(일수벌금제)

3. 일생주기성

- 요람에서 무덤까지
- 박근혜 정부: ‘평생사회안전망’ 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문재인 정부의 노력: 아동수당, 청년통장, 치매국가책임제 등
- 주요 고려사항
 1. 아동청소년기의 중요성: 제도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
 2. 인생주기별 주요 인생과업의 파악 및 제도의 보장 수준 확인
 3. 인생주기별 제도적 보장의 연계

4. 적절성

- 정책 및 제도가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의미
- 대표적인 실패의 예: 저출산과 노인빈곤
- 사회복지제도의 적절성의 종합적인 적절성 평가로서의 국민 행복도

<표> 한국 복지수준의 변화

	종합	경제 활력도	재정 지속도	복지 수요도	복지 충족도	국민 행복도
한국 2016	0.510	0.834	0.879	0.786	0.407	0.133
한국 2011	0.538	0.750	0.775	0.781	0.407	0.348

자료: 김상호 외(2016)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선택의 기로

-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의 도입 및 개선 논의가 제시될 것임.
-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포함
-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관한 선택
- 제도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 개선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